

<2011년 2월 >

35번째, 농기구이야기

씨앗을 갈무리 하는 그릇 ‘뒤옹박’



NH NongHyup

농업박물관

1. 뒤옹박의 개념

뒤옹박은 완전히 익지 않은 늦가을의 박을 쪼개지 않고, 꼭지 근처에 주먹만한 구멍을 뚫고 속을 파내어 만든 바가지이다. 지역에 따라 뒤편박·두벵이·주름박·두름박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2. 뒤옹박의 용도

뒤옹박은 주로 저장용기로 쓰였다. 뒤옹박에 끈을 달아 마루나 벽 같은 데 걸어 두고 꽃씨나 채소의 씨앗 같은 것을 넣어 두며, 간단하면서 손쉽게 쓰는 일용품을 넣어 두는데 널리 쓰였다.

일반적인 형태는 바가지처럼 둥글지만 호리병처럼 위가 좁고 밑이 넓은 박으로 만들기도 한다. 터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대오리(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만든 것)로 그물처럼 만들어 덧싸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대오리를 윗부분에서 모아 묶어 고리로 삼는다.

뒤옹박에는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뒤옹박을 도시락으로 쓰기도 하고 달걀 같은 것을 담아두기도 하며 흔히 처마 밑이나 보꼭(지붕의 안쪽) 밑 또는 방문 밖에 매달아 두었다. 가을에는 메뚜기를 잡아 담는 통으로도 썼으며, 도시락이나 달걀 보관 용으로 쓰는 뒤옹박은 구멍을 내지 않고 꼭지 부분을 따내 뚜껑으로 사용하였다.

뒤옹박은 박의 크기에 따라 용량이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5~10리터를 담을 수 있다. 박이 나지 않는 곳에서는 짚으로 호리병처럼 엮어 사용한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뒤옹박에 구멍을 뚫고 속이 빈 작대기를 꿰어 씨를 뿌릴 때 사용하는데, 옛말 그대로 ‘드베’ 또는 ‘두베’라고 부른다.



3. 씨앗을 갈무리 하는 그릇

가을걷이가 끝나면 추수한 곡식이나 채소를 양식이나 씨앗으로 쓰기 위해 갈무리 해둔다. 특히 이듬해 농사에 쓸 씨앗을 갈무리 하는 일을 씨갈무리라고도 한다.

종자(씨앗)는 번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왕성한 생명력과 발아력(發芽力)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가을걷이를 하면서 농사가 가장 잘 된 곳에서 따로 거두거나, 타작할 때 잘 여문 것을 따로 덜어두었다가 이듬해 씨앗으로 쓴다. 만일 농사가 잘못되면 잘된 집의 것을 구해다 쓴다.

곡식은 개상이나 텃돌에 타작할 때 맨 앞에 떨어지는 것을 모아서 잘 말린 후 자루나 가마니에 담아서 방한 구석에 겨우내 쌓아두었다가 이듬해 종자로 쓴다. 재배규모가 작은 작물의 씨앗은 뒤웅박이나 씨주머니에 담아 보관하고, 상추와 같이 소량의 씨앗은 닥종이에 싸서 다른 씨앗과 함께 보관해둔다.



<씨앗 망태기>

주로 파종할 때에 씨앗을 담아서 어깨에 메거나 들고 다니면서 뿌릴 때 이용된다. 가을에 소량의 종자를 담아 보관하기도 한다.



<씨앗 종태기>

짚이나 싸리로 만들어 씨앗 종자를 담아 보관하는 그릇이다. 형태와 쓰임 모두 뒤웅박과 유사하다. 종태는 씨를 의미하는 한자 '종(種)'과 망태기의 '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4. 뒤웅박과 관련된 관용어

뒤웅박은 일상적으로 두루 쓰이는 물건이었으므로 그에 얽힌 관용어 표현도 많은 편이다.

뒤웅박은 안에 넣어두는 물건에 따라 쓰임새나 가치가 달라지는데, 부잣집에서는 뒤웅박에 쌀 같이 귀한 것을 담고, 가난한 집에서는 여물 같은 것을 담아 윗목 천장이나 방문 밖에 매달아 두었다. 여기에서 예전에 흔히 쓰였던 ‘(여자)팔자가 뒤웅박 팔자’라는 표현이 나왔다. 혹은 입구가 좁은 뒤웅박의 구조에 빗대어 입구가 좁은 뒤웅박 속에 갇힌 팔자라는 뜻으로, 일단 신세를 망치면 거기서 헤어 나오기가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뒤웅박차고 바람잡는다’라는 말은 맹랑하고 허황된 짓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곡식의 씨앗을 보관해 두어야 할 뒤웅박에 바람을 잡아 넣어두려는 허무맹랑한 일을 하려는 사람을 빗대어 말할 때 쓰였다. 또 ‘끈 떨어진 뒤웅박신세’라는 말은 요즘에도 자주 쓰이는 관용어로 본디 박에 끈을 매달아 이용하게 되어있는 뒤웅박에 끈이 떨어져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므로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신세를 일컬을 때 쓰인다.

【참고자료】

김광언,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박호석, 안승모, 『한국의 농기구』, 어문각, 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한민족역사도감 생업』, 국립민속박물관, 2008.